

이화여성신학소식



발행인: 박경미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대학동 11-1(120-750)

전화: 3277-3278~9 / 팩스: 312-2062 / http://eiwts.ewha.ac.kr / E-mail: E600067@ewha.ac.kr

권두언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장윤재

기독교학과 교수

요즘 인기라는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남하당(‘남자는 하늘이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책상을 두들기며 내뱉는 소리다. 그는 언제나 소는 ‘여자가’ 키워야 한다고 옥박지른다. 그런데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 지금 우리나라 산천 곳곳이 지난 겨울 우리가 땅 속에 파묻은 소와 돼지와 오리와 닭들의 울음소리로 넘쳐난다. 2010년 11월 23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소와 돼지 25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AI 조류독감으로 오리와 닭 350만 마리 역시 ‘살처분’되었다. 우리는 불과 지난 몇 달 사이에 도합 6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을 죽이며 또 하나의 ‘아우슈비츠’를 연출했다.

국제정정지역지위 유지를 위해, 고작 연간 20억 원의 수출을 위해, 이처럼 무참한 살육을 자행하고 거기에 3조원을 쏟아 부는 이 광기를 우리는 무어라 설명해야 하나. 자연 상태에서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50-90%가 스스로 치유하고 별떡 일어서는데, 어미부터 새끼까지 함께 땅에 묻어버리는 이 잔인함을 우리는 무어라 설명해야 하나.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료의 시체 사료와 성장촉진제 그리고 항생제를 마구 먹이고 그 살점을 맛있게 먹는 이 태연함을 우리는 무어라 설명해야 하나. 태어나자마자 부리를 자른 닭들에게서 뺏았없이 냉큼냉큼 계란을 받아먹는 이 비정함을 우리는 무어라 설명해야 하나. 아니, 자신의 식탐(食貪)을 위해 평생 동안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게 돼지들을 가두어 키우는 이 인간을 하 나님은 무어라 설명하셔야 하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더 잘 알겠지만, 소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 들을 친히 키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소와 돼지와 오리와 닭들도 친히 키우신다. 온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갖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다 른 짐승들에게도 내리셨다(창 1:21-22). 노아의 홍수 때에는 인간만 살리신 게 아니라 온갖 생물들을 한 쌍씩 방주에 넣 으시며 이 곤질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짐승들도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다. 때 문에 지금 우리의 행태는 사랑으로 생명을 지으시고 정성으로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패악이고 반역이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벌인가 /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인가 / 아니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인가. / 미안하다, 용서하라, 잘 가라.” 임옥상의 ‘인간 없는 세상’ 중에 나오는 글이다. 아마도 이 땅의 동물들은 인간 이 없으면 더 행복하게 살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입을 달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실 하나님께서는(눅 19:40) ‘인 간 없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장엄한 생명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실 것이다.

새 봄, 얼었던 땅들이 녹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지난 겨울 밤 우리가 땅 속에 파묻어두었던 우리의 부끄러움이 곧 하늘 아래 드러날 것을 예감한다. 산 채로 땅에 묻혀 울부짖던 돼지들의 울음소리에서 우리는 그 옛날 아벨의 피소리를 들었 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 4:9)고 물으셨다. 이 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 동 료 피조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네 동료 피조물을 어디에 묻었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는(롬 8:22) 이 봄, 나는 하나님의 영이 만물 속에서 함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이 봄, 나는 부 끄러워 어찌 사나.

서평

이시무레 미치코의 『슬픈 미나마타』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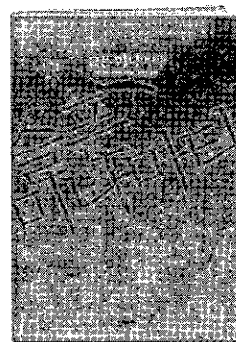
장은정 (통계학과 4학년)

이야기는 일본 남서쪽 시라누이해 연안 미나마타시의 아름다운 자연묘사로 시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를 앞마당 삼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신일본질소미나마타공장이 들어섰다. 공장이 들어서며 미나마타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인구와 조세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마타병이 발병했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장과 정부와 그리고 스스로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어부들은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스스로가 미나마타병으로 투병을 하다 목숨을 잃어갔다. 화자는 미나마타병에 걸린 사람들의 집과 병원 그리고 데모에까지 함께 하며 환자들의 삶을 고스란히 이야기로 담아냈다.

작가는 미나마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자연과 산업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성장주의와 그로 인한 산업公害가 선한 사람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핍박하는지 이 책을 통해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미나마타에 질소공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공장 배수구가 있는 하쿠켄 항구에서는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대신 끈적끈적하게 얹힌 목적인 것들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송어가 사라졌고 새우, 전어가

눈에 띄게 줄더니 고양이들은 코끝을 땅에 박고 빙글빙글 춤을 추다 죽었다. 1953년 1호 환자 미조구치는 자신이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다. 미나마타 사람들은 하나 둘 씩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 끝이 저리다가 1개월 안에 생사가 갈리었으며 혹 살아 남는다 해도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첫 환자 발병 후 3년 뒤인 1956년, 의료진은 이 병을 미나마타병이라고 규정했다. 그 후 또 3년이 지난 59년에서야 이 병의 원인물질이 메틸수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1968년, 정부는 드디어 미나마타병의 모든 원인이 질소공장의 배수구를 통해 나온 폐수 속 유기수은이라는 공식 발표를 했다.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도 공장폐수가 문제임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공장은 조업을 계속했고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미나마타병 환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얻고자 이곳저곳 정부부처들을 찾아다녔지만 다른 부서로 가보라는 대답만 얻을 뿐이었다. 나중에는 미나마타의 다른 시민들도 이 환자들을 외면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한 노동자들과 연안에서 어업을 하지 못해 수익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한 어부들은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연민과 죄의식을 느꼈지만 결국 대부분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공장, 정부, 다른 시민들로부터 미나마타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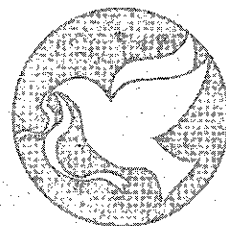
환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짓밟혔다. 질소공장이 무책임하게 폐수를 바다로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평화로웠을 촌락공동체가 산산조각이나 버렸다. 죄는 공장이 짓고, 피해를 보는 것은 선한 일반 사람들이었다.

학창시절 우수한 시험성적을 거두기 위해 '수은은 미나마타,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 라고 외웠다. 그 병이 지니는 함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지도 못 한 채,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 생각하고 단순히 대상화시켰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이런 일은 나의 삶과는 다르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미나마타' 라는 단어 안에 자본주의의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 받는 자연과 인간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때는 몰랐었다.

역사는 현재의 본보기라고 했다. 우리는 미나마타병에 대해 학교에서 배웠다. 그리고 미나마타병을 본보기로 삼아, 산업재해로 인해 자연과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삼성반도체의 공장 노동자 중 이름 모를 백혈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된 환자는 130명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은 47명이라고 한다. 2007년 한 여직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백혈병의 원인과 책임에 대

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려는 공장과 서로 다른 부서에 떠넘기려는 정부와 자신의 밥그릇을 잃기 싫은 다수 대중으로 인해 미나마타 사람들의 고통이, 최초의 산업재해라고 일컬어지는 미나마타병 출현 이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에세이

이화목회상담센터를 개소하면서...

이 경 애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2010년 한해를 마감하는 즈음인 12월 6일, 다락방 1층에서는 목회상담 전공자로서 감격적인 모임이 이루어졌다. 교수님들과 전공자 약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바로 '이화목회상담센터' 개소에 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와 신학대학원 목회상담전공자와 더불어 여성신학연구소 부설로 '이화목회상담 아카데미'가 시작된 후로 목회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늘 목말랐던 상담소에 대한 갈증에 단비와 같은 역사가 시작되었다.

상담센터는 교목실과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다락방 2층과 3층을 주공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신학대학원 소강의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했다. 지난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는 동안 다락방을 차지하고 있던 낡은 가구들을 정리하고, 십시일반 소가구와 비품을 후원받고, 내부장식을 위한 재능기부를 받으며 상담실이 소박하고 정감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지켜본 스텝 모두는 이 공간이 걸은 소박하지만 목회상담이 이룬 큰 도약의 산물임을 깨닫고 크게 감사했다.

목회상담은 이론 뿐 아니라 임상훈련이 절대적



이화목회상담센터 오픈하우스 예배



손운산 목사님의 설교

으로 필요한 실천신학분야이다. 그동안 전공자들은 임상실습의 장을 찾아 다른 학교나 기관의 임상센터를 전전하며 훈련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학대학원이나 상담대학원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학교가 아닌 타학교에서 임상실습을 받느라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담소의 개소로 전공자들이 이론 교육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터전이 생겼다.

이번 봄학기부터 상담실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의뢰한 내담자와의 상담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상담사의 대부분은

목회상담협회의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박사수로 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목회상담협회의 지도감독자인 전공교수님들의 수퍼비전을 받게 된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이 활기차게 준비 중이다 (www.epcc.or.kr).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상담이 가능해짐은 물론 오프라인 상담신청이 수월해질 것이다. 또한 대학원 및 아카데미 수료자 중에서 인턴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전공공부와 더불어 임상실습과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목회적 돌봄과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인근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상중이다. 앞으로 상담 대상의 범위는 청소년을 시작으로 그 부모들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성인들로 확장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상담소 개소를 준비하면서 걸의 규모는 소박하지만, 교수님들의 관심과 배려, 준비하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갈망,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는 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에 가슴 떨리는 순간이 많았다. 이제 새롭게 걸음마를 시작한 상담센터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열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다시 한 번 교수님 이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아, 새 봄이 기다려진다.

◆ 포토앨범 I ◆

2010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5회 수료식



5기 졸업생들



데이트 상담 워크샵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공개워크샵 III

강연회 잠깐기

이화신학공동체 콜로키움을 다녀와서

윤 영 숙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지난 2010년 10월 28일 대학교회 소예배실에서 열렸던 이화신학공동체 콜로키움은 학부시절 축제행사와 교회 사경회의 감동이 각각 절제되어 어우러진 마당의 느낌을 주었다. 감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언어로 쓰인 논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참석자 모두 진관 식당으로 이동하여 밥상을 함께 했던 짧은 예배와 축제의 경험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인지를 깨닫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적 연구주제도 배우고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은 백은미 교수님의 "정보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생태여성주의 신학적 고찰"에 대한 것이었다. 교수님의 강연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달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의 위기와 가치의 혼란, 그리고 공동체적 삶에 대한 위기를 경험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정체성의 탐색과 추구가 다양한 가상 공동체를 통해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현실세계와는 다른 정체성의 혼란과 가치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 이해, 윤리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신학의 역할은 기독교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사이버 공간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 신학자인 맥페이그(Sallie McFague)의 '하나님의 몸'으로 은유된 범재신론적 하나님 개념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가

져왔다. 이러한 하나님의 체현된(embodied) 초월성의 개념은 인간존재가 정보나 이미지로 정의되는 탈육화(disembodiment)를 경험하는 사이버 공간에도 중요한 신학적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현대인들의 중요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책임 있는 체현된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구를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오이코스(oikos)'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맥페이그는 지구에 거주하는 온 가족의 기초적 필요를 위하여 지구생태계의 보전을 강조한다. 지구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정보생태계 역시 자본이 정보를 장악하고 왜곡하며, 많은 사람들을 정보로부터 소외시키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독점과 통제, 소외 현상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교수님은 모든 인간은 서로의 삶과 미래를 공유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들로서 이 정보생태계의 공동 운명체이면서 공동의 책임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정보생태계의 위기에 직면한 기독교 공동체는 새로운 인간 이해와 자아정체성 이해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강연은 장운재 교수님의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거라 - 전능하신(?) 인간과 알뜰하신 하나님"이었다. 교수님의 강연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 현상은 바로 물의 순환 때문에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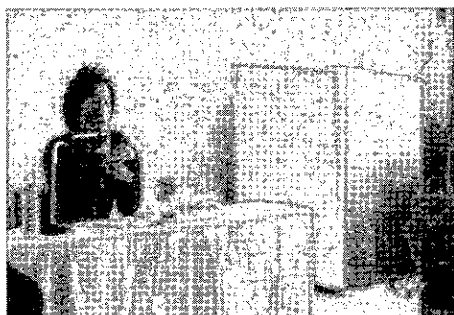
어나며, 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문순환(水文循環)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부양하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다. 강은 단순히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신비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복잡한 시스템인 것이다. 하나의 거대한 생명 체계인 하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향연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강물의 높낮이를 통해 복잡한 생명의 과정을 지휘하시는 부지런하고 현명한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곳을 통해서도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여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살림에 관심을 갖는 알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인류가 지난 20세기에 그 이전 어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하던 일, 즉 범지구적인 물순환에 대한 물리적 간섭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인간의 지배권'의 문제, 즉 '전능하신(?) 인간'의 문제가 21세기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중심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자연은 평등하며, 자연적인 하천 유량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에는 제한이 필요하다. 성서는 언제나 인간을 하나님과 세계(자연, 우주)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고 창조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을 이야기 한다. 생태 영성의 진수를 보여주는 성 프란체스코의 "형제 태양과 자매 달의 시"에서도 인간은 온 우주의 겸허한 막내로 형님과 누님들의 손을 잡고 있는 동등한 피조물일 뿐이다. 교수님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인간관이라고 하면서, 이 세계와 자연의 지배자요 또 소유주인

줄로 착각하며 오만해진 우리 '전능하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아담아(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계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오이코스(oikos)', 즉 지구라는 집안 살림 전체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경영(economy, 경영), 즉 살림에 있다고 했다. 알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다.

질문과 토론 시간에는 사이버 공간의 가상성(virtuality)을 설명하는 많은 학자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적 몸이 임재한다는 기독교 신앙을 그 예로 든다는 것이 흥미로운 주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로 통합되는 문제에 대한 토론과, 정체성이란 원래 다중적인 것이며 유동적이고 통합적인 자아로 되어가는 것이 건강한 자아라는 내용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제는 인간의 친구라기보다는 개발 대상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공사가 끊이지 않는 강과 산에 대한 이전의 추억도 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살려내시고 이 세상에 함께 하여 지구라는 집안 전체의 살림에 온 마음을 쓰시는 알뜰하신 하나님 이미지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짧은 후기를 쓰면서 좋은 내용들이 지면 때문에 과감히 생략된 것과,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진지한 배움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따로 있으면 중발해 버릴 물방울과 같은 우리들을 이화라는 물줄기에 합류하여 따라가게 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포토앨범 II ◆

이화신학공동체 콜로키움



첫 번째 발표: 백은미 교수님



두 번째 발표: 장윤재 교수님



청중들



토론시간



참석자 질문



교내 소식

■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2011년 3월 14일(월) ~ 5월 30일(월)
/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봄학기
시 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15분
장 소: 대학교회 106호

■ 기독교학과

- 2011년 3월 8일(화) 오후 5시 30분
/ 개강예배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2011년 4월 1일(금) ~ 2일(토)
/ 기독교학과 MT
장 소: 춘천 기화리조트

■ 신학대학원

- 2011년 3월 8일(화) 오후 5시 30분
/ 개강예배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2011년 3월 25일(금) ~ 26일(토)
/ 공동체 훈련 및 전공영역 탐색 세미나 겸 MT
장 소: 다락방
- 2011년 5월 24일(화) 오후 4시 30분~6시
/ 125주년 기념 채플 및 강연회
강 연: 이경숙 부총장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교수 동정

- 정용석 교수
- 보직발령: 교목실장



교외 소식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2011년 3월 15일(화) ~ 4월 4일(월)
/ 재일교회여성지도자 한국연수 프로그램
주 제: 평화와 인권
- 2011년 4월 20일(수) 오전 11시
/ 창립 44주년 기념예배
장 소: 기독교연합회관 1311호
- 2011년 4월 ~ 10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4시~6시)
/ 기독 여성을 위한 "월کم 투 섹슈얼리티" 프로젝트
장 소: 기독교연합회관 1311호
- 2011년 5월 27일(금) 오전 11시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제29회 총회
장 소: 여전도연합회관 김마리아홀
- 2011년 5월 30일(월) 오후 12시
/ 에큐메니칼 여신학생 대표자 모임
장 소: 연동교회 다사랑 카페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2011년 4월 30일(토) 오후 10시 30분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창립 31주년 기념예배 및 모금행사
장 소: 새문안교회 언더우드 교육관 1층 로비
내 용: 예배와 1일 찾집

■ 한국여성신학회

- 2011년 3월 19일(토) 오전 10시
/ 신진학자 발표
장 소: 이화여대 대학교회 소예배실
발 표: 하희정, 김은주
- 2011년 5월 28일(토) 오후 2시~5시
/ 한국여성신학회 학술제
장 소: 이화여대
발 표: 이숙진, 백소영, 이인경, 전철
주 최: 한국여성신학회, 여성신학연구소 공동주최

■ 기독교민회

- 2011년 3월
/ 52기 신입회원교육
내 용: 기독교민회 운동사, 한국여성 운동사,
마음 나누기
장 소: 영등포 여성미래센터 404호
- 2011년 5월 20일(금)
/ 예배 워크숍 “민속예배 들여다보기”
내 용: 김지목 목사를 강사로 우리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는 민속예배에 대해 강연과 시연
장 소: 영등포 여성미래센터 404호
- 2011년 5월 ~ 7월 (매주 1회)
/ 3기 교회행동훈련 “행복한 동행”
내 용: 주민운동의 역사, 조직화 방법론, 민 만나기,
교회 사명세우기, 팀워크 개발 등에 대해 논의
장 소: 영등포 여성미래센터 404호
- 2011년 6월 15일 오후 12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대협 수요시위
주관
내 용: 몸기도, 노래 나누기, 연대발언, 지지 성명서
낭독 등의 행사
장 소: 일본 대사관 앞



Feminist Theology News

Table of Contents

■ Foreword	Yoon Jae Chang	1
■ Book Review		
Michiko Ishimure, <i>Paradise in the Sea of Sorrow: Our Minamata Disease</i>	Eun Jung Chang	2
■ Essay		
Opening Ewha Pastoral Counseling Center	Kyung Ahe Lee	4
■ Photos I		6
■ Lecture Review		
Ewha Theology Community Colloquium	Young Sook Yoon	7
■ Photos II		9
■ News		10



Ewha Institute for Women's Theological Studies

11-1 Daehyun-dong, Seodaemun-ku, Seoul, Korea 120-750
Tel. 82-2-3277-3278 Fax. 82-2-312-2062
Homepage: <http://eiwts.ewha.ac.kr>
E-mail: E600067@ewha.ac.kr